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5월 2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송요한 해외투자과장, 고승진 사무관(02-2110-5377) 변영만 투자정책과장, 김동연 사무관(02-2110-5353)		

U턴기업 유치 "업종별「U턴 TF」" 출범
- 업종별 협회와 함께 U턴 수요 적극 발굴 -

□ 업종별 「U턴 TF」 출범을 위한 Kick-off 회의가 5.24일(목) 10:00,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의 일환인 "U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이날 회의에는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과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0개 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업종별 동향을 분석하고,

○ U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패션,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U턴 TF」를 출범키로 함

- 향후 업종별 「U턴 TF」를 통해 구체적인 U턴 수요를 발굴하고, 특히, 집단 U턴 수요 발굴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

○ 또한, KOTRA 내 "U턴기업 지원센터"를 5.24일부터 설치·운영하여 U턴기업을 위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도·상해 등 주요 KOTRA 무역관에는 "U턴기업지원데스크"를 6월 중에 설치키로 함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종별 U턴 동향 분석 결과,

○ 의류, 전자제품 등 업종의 경우 FTA 발효, 진출국 임금 인상, Made in Korea 제품 선호 등으로 인한 U턴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U턴 추진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 중국에 진출한 패션업종 A사, 기계업종 B사, 의류업종 C사, 신발업종 D사 등의 경우 해외 바이어의 "Made in Korea" 선호,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부가 가치제품을 중심으로 현재 U턴 추진 중이거나 향후 U턴 고려중

○ 특히, 중국 진출 패션 업체들이 국내로 집단 U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 동 사례를 발표한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해당 업종의 10개사가 먼저 복귀를 협의 중이며,

□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 차관은,

○ 이번 대책이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U턴을 촉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잠재적 U턴 수요를 실제 U턴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오늘 발족한 「U턴 TF」가 U턴 수요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금년 3월, '美 제조업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생산비용 구조 변화에 따라 美 제조업의 부활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 '15년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7개 산업으로 운송, 컴퓨터·전자, 기계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10여년간 年 800억~1,200억불의 생산증대 및 총 220만~310만명의 고용창출을 전망

○ 실제 Ford, Ge, Master Lock, DuPont, Caterpillar 등 대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추진 중으로,

- GE의 경우 '11.6월 켄터키 공장을 재가동을 위해 6억불 투자하였고, '14년까지 총 10억불을 투자하여 1,3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美 오바마 정부도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 美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U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

○ 우리 정부도 국내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국내 U턴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EU,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가능성을 실제 U턴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U턴기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참고1] 업종별 「U턴 TF」 출범 Kick-off 회의 계획

[참고2] 주요 U턴 추진 사례

[참고3] 지원체계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참고4] 보스턴 컨설팅社(BCG) 보고서 주요내용

[참고5] 美 기업 U턴 사례 및 美정부의 지원 정책

참고 1 업종별 「U턴 TF」 출범 Kick-off 회의 계획

□ 개요

○ **(배경)** 제119차 비대위에서 『U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 VIP 보고(4.26)

○ **(목적)** 업종별 U턴 동향 분석 및 주요 업종별 U턴 TF 구성

○ **(일시)** 5월 24일(목) 10:00~11:30(90분)

○ **(장소)** 지경부 6층 다산실(623호)

○ **(참석)** 지경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

지경부	2차관(주재),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력산업정책관, 투자정책관, 지역투자팀장, 해외투자과장
유관기관	KOTRA, 산단공, 전북
협 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봉제기계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0개 협회 임원

□ 주요 논의 사항

○ U턴기업 지원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주요 U턴 사례 소개, "업종별 TF" 및 "U턴기업 지원센터" 발족

□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5)	■ 모두말씀	2차관
10:05~10:25(20)	■ U턴기업 지원방안 및 사례 소개	해외투자과장
10:25~10:40(15)	■ 집단 U턴 유치 사례 발표	지자체
10:40~11:25(45)	■ 토론(업종별 동향 등)	업종별 협회, 소관과
11:25~11:30(5)	■ 맺음말씀	2차관

참고 2 주요 U턴 추진 사례

	업종	진출 지역	복귀요인	특이사항
A기업	패션	중국	·인건비 상승 ·해외 바이어의 한국제품 선호 ·FTA 관세혜택	·현지 고용인원 : 약 800명 ·'11년 매출액 : 약 630억 ·국내공장 신설 후 단계적으로 복귀 ·A를 포함한 10개사가 먼저 집단 U턴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
B기업	기계	중국	·인건비 상승 ·증치세 ·노무관리 악화 ·FTA 관세혜택	·현지 고용인원 : 약 900명 ·현지 공장에서는 저부가가치제품,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 생산계획 ·현재 복귀계획 검토 중
C기업	의류	중국	·현지 경영 환경 악화 ·FTA 관세혜택 ·전력수급 불안	·현지 고용인원 : 약 2,000명 ·'11년 매출액 : 약 1,000억원 ·저가제품은 제3국으로 이전하고, 고가제품은 국내로 이전 검토 중
D기업	신발	중국	·현지 경영 환경 악화 ·FTA 관세혜택	·현지 고용인원 : 약 800명 ·'11년 매출액 : 약 960억원 ·고가의 기능성 신발 생산 확대를 위해 현지 생산라인을 2개 축소 후, 국내 공장 라인 증설 ·부분적 국내 복귀 발표
E기업	의류	중국	·인건비 상승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현지 고용인원 : 약 1,000명 ·현재 국내 고용인원이 80명으로 점차 현지 규모를 축소하고 복귀 규모 확대
H기업	의류	중국	·인건비 상승 ·FTA 관세혜택	·본사는 미국(LA), 중국에서 생산 ·현지 고용인원 : 150명 ·H사를 포함, 10~15개사가 집단 U턴 추진 중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

참고 3 지원체계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법령 제·개정)** U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 분	내 용	기관	개정(예정)	시행(예정)
법인세 관 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12년 9월	'13년
보조금	고시 개정	지경부	'12년 6월	'12년 7월
외국인력	비자발급 지침 개정	법무부	'12년 5월(완료)	'12년 7월

□ **(지원조직)** KOTRA 본사 내 "U턴기업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현지 U턴 수요 발굴부터 국내 투자까지 全단계 일괄지원('12.5.24)

○ 해외 KBC에 "U턴기업 지원데스크"를 설치하여 U턴 수요 발굴('12.6월)

□ **(정책협의회)** One 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입지정보DB 구축, 사후관리 위한 유관기관 간 정책협의회 운영(5.2일 1차 회의 개최)

○ **(구성)** 지경부, 고용부, 국토부, 법무부, KOTRA, 산단공, 무보

□ **(수요발굴)** 업종별 협회, 지자체, KOTRA 현지 KBC 대상으로 U턴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국내)**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6월중), 산단공과 연계하여 지역별 U턴기업 지원제도 홍보(수시)

○ **(국외)** KOTRA 현지 KBC, 在中 상의 주최로 현지진출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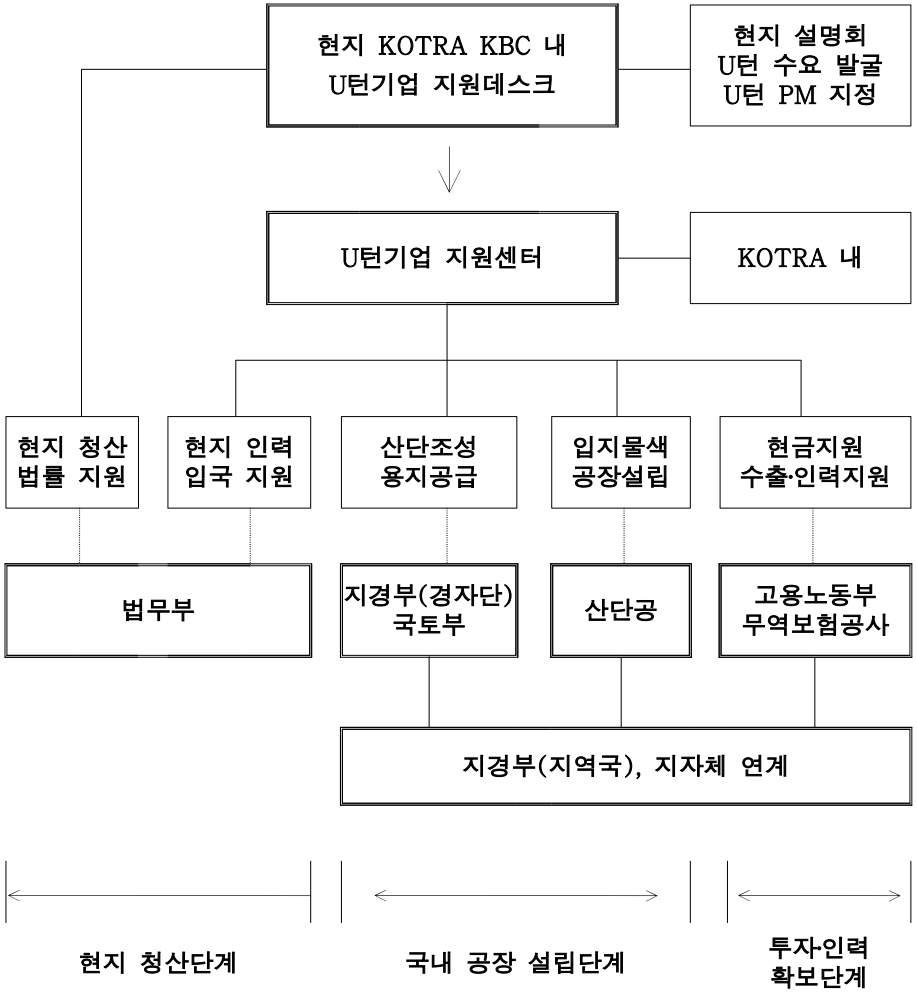
* 5.18일 중국 북경에서 1차 설명회 개최

□ **(TF 구성)** 업종별로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U턴 수요를 발굴

업종	5개 업종 : 패션, 의류, 신발, 전자, 기계
기능	① 업종별로 구체적인 U턴 수요 발굴 ② U턴 수요 발굴시 U턴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One Stop 서비스 제공 ③ 집단 U턴 수요 발굴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 One Stop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U턴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U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KOTRA 무역관 내 'U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 Stop 서비스 지원



- 법무부, 국토부, 산단공,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U턴 수요 발굴→현지 청산→국내입지선정」 등 국내복귀 全 단계 일괄지원

참고 4 보스턴 컨설팅그룹(BCG) 보고서 주요내용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이 지난해 8월과 금년 3월 각각 발표한 'Made in America, Again' 및 'U.S. Manufacturing Nears the Tipping Point' 보고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 요 약 >

1. 中 생산비용구조 변화

○ 중국은 WTO 가입('01) 이후,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고정된 통화 가치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 그러나, 최근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 감소

- (임금상승) 中 평균 임금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까지 연 18%씩 상승하여 시간당 4.5불에 이를 것

- (생산성 미흡) 中 근로자 생산성 증가율은 임금증가율보다 낮아, 이를 고려할 경우 美-中간 실질적 노동비용 격차는 더욱 축소

  * 중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 조정 임금' 격차(배율) : ('05) 4.6배 →('10) 3.2배 →('15) 2.3배

- (기타비용) 인프라 및 운송비용 상승, 위안화 절상 등

2. 美 제조업에 미칠 영향

○ '15년경 美-中간 제조비용 격차가 최소화되어, 北美시장 진출 목적 기업은 미국을 생산기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향후 5년 이내,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임계점(Tipping Point)에 있는 7개 산업은 아래와 같음

  * ① 운송(자동차 등) ② 컴퓨터·전자 ③ 조립 금속 ④ 기계 ⑤ 플라스틱·고무 ⑥ 가정용 기기·전기장치 ⑦ 가구

  * 7개 산업 對中 수입규모의 10~3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생산기지 이전 전망

○ 생산기지 미국 이전 등으로 향후 10여년간 年 800억~1,200억불의 생산증대 및 총 220만~310만명의 고용창출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 한-중간 생산비용의 실질적 격차*를 업종별·지역별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유턴기업 수요 적극 발굴 필요

  * 근로자 생산성 차이, 운송비용, 해외 생산 리스크, FTA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Ⅰ 중국의 생산비용구조 변화

1. 지난 10년간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미국 제조업의 부진

○ 중국은 WTO 가입('01) 이후,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고정된 통화 가치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 '00~'09 중국 수출은 1.2조불로 5배 증가, 전세계 수출 점유율은 3.9%→9.7%로 증가

○ 반면,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공장폐쇄 등 제조업 위기設 대두

2. 최근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 감소

○ (임금 상승) 중국 임금은 '00~'05년 연 10%, '05~'10년 연 19% 상승

- 향후 5년간 평균 임금은 연 18%씩 상승하여 시간당 4.5불에 이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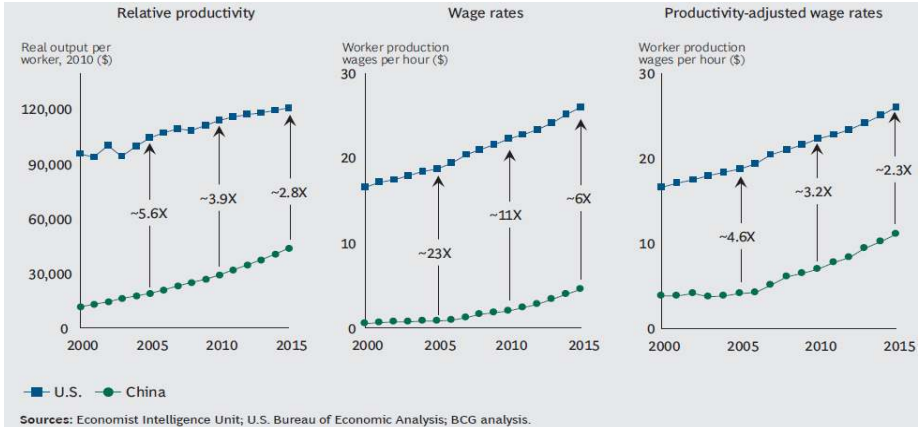
* 최대 생산기지인 양쯔강 삼각주(상하이, 저장 등)의 임금은 6.3불에 달할 전망

○ (생산성 미흡) 中 근로자 생산성 증가율*은 임금증가율보다 낮아, 이를 고려할 경우 美-中간 실질적 노동비용 격차는 더욱 축소**

*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씩 증가, 향후 5년간 8.5%씩 증가 전망

**'15년 양쯔강 삼각주의 생산성 조정임금(15.03불)은 美 남부(24.81불)의 60.6% 수준

< 그림1. 미국과 중국 간 생산성 조정 임금 격차의 축소 >



○ (기타비용) 인프라(전기, 토지 등) 및 운송 비용 상승, 위안화 절상 및 기타 공급체인 다변화에 수반되는 비용* 등

* 재고비용, 품질관리, 항구폐쇄 및 자연재해, 지재권 침해 및 통상분쟁 등

Ⅱ 美 제조업에 미칠 영향

1. 생산기지로서 미국의 경쟁력 부각

○ '15년경, 美-中간 비용격차가 최소화 됨에 따라, 북미시장 진출 목적의 기업들은 미국을 생산기지로 선택할 가능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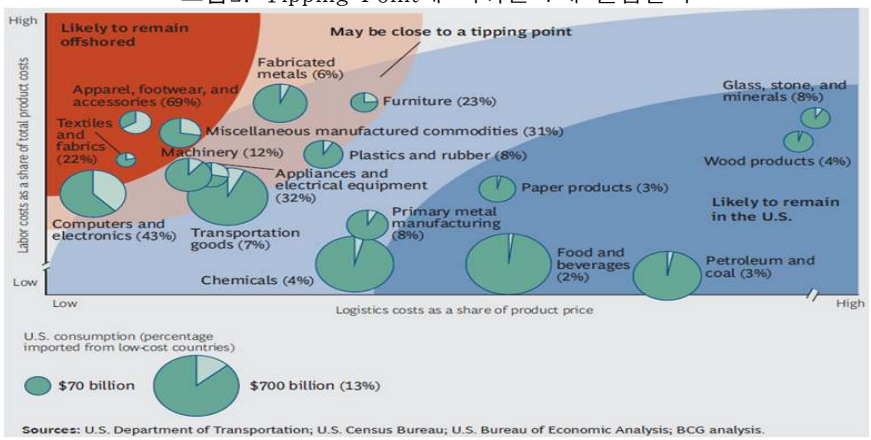
2.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7개 산업

○ 북미 시장 타겟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중 향후 5년 이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임계점(Tipping Point)에 있는 7개 산업을 도출

- ① 운송(자동차 등) ② 컴퓨터·전자 ③ 조립 금속 ④ 기계 ⑤ 플라스틱·고무 ⑥ 가정용 기기·전기장치 ⑦ 가구

○ 위 산업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비중이 보통 수준이고, 물류비용·시장접근성 등 운송관련 이슈가 중요한 특징을 지님

< 그림2. Tipping Point에 가까운 7개 산업분야 >



3.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생산증대) 향후 10여년간 年 800억~1,200억불의 생산증대

○ (생산기지 이전) 7개 산업 중 對中 수입규모의 10~30%에 해당하는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年 200억~550억불의 생산증대

○ (수출 증가) 향후 5년이내, 美 수출은 年 최소 650억 달러 증가 전망

- 이는 서유럽대비 낮은 임금수준 등 생산비용 경쟁력이 높기 때문

* '10년 미국의 생산성 조정 임금은 서유럽 대비 35% 저렴('00년 12%, '05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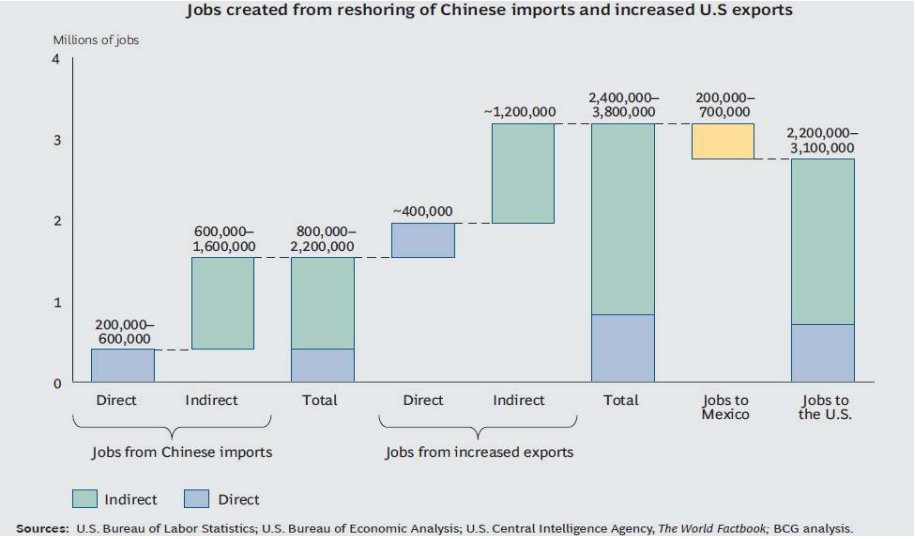
(2) (고용창출) 향후 10년간 총 220만~310만명의 고용창출

○ 미국과 멕시코에서 총 240만~380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 직접고용 : 60만~1백만, 간접고용 : 180만~280만

- 미국에서 220만~310만명, 멕시코에서 20만~70만명의 고용 발생 전망

< 그림3. 고용창출 효과 >



III 정책적 시사점

1. 韓-中간 생산비용의 실질적 격차 분석 필요

○ 명목 임금 격차 뿐만 아니라, 근로자 생산성 차이, 운송비용, 해외 생산 리스크 및 FTA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실질적 생산비용 격차를 업종별·지역별로 분석하여, 중국 진출 기업 또는 진출을 고려중인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2. 유턴기업 수요의 적극 발굴

○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기업 중 비용경쟁력이 낮은 지역 및 업종을 중심으로 유턴기업 수요를 Top-down으로 발굴

○ 중국 진출 기업 유턴에 따른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거시적 분석도 필요

참고 5 美 기업 U턴 사례 및 美 정부의 지원 정책

1. 주요 美 기업의 U턴 사례

○ **(Ford)** 2015년까지 멕시코, 중국 등으로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등 국내로 2,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고효율의 자동차 생산을 위해 2011년~2013년 동안 8.5억불 투자, 미시간 주는 Ford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 **(GE)** '11.6월 켄터키 공장을 재가동을 위해 6억불 투자하였고, 2014년까지 총 10억불을 투자하여 1,3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 노동력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 등에 비해 비싸지 않으므로, 신제품은 미국(Louisville)에서 생산 계획

○ **(MasterLock)** 2010년 중반부터 중국으로부터 복귀하여 밀워키에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

- 숙련된 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 기술대학과의 파트너쉽 구축 병행

2. 美 정부의 U턴기업 지원 정책

□ **(기본방향)**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해외진출(outbound)을 줄이고 국내생산(inbound)을 고무

□ **(U턴기업 지원)** 기존 해외진출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을 줄이고, U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이전비용지원)** 국내복귀시 이전비용의 20%를 지원

* 지원금액은 기업이 국내복귀 시 향후 5년 간 받게 될 법인세 감면액으로서, 총 이전비용의 20% 한도에서 현금으로 사전지급(carry forward)

○ **(설비투자지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시 지출한 설비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기존의 복귀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해외수익에 대한 조세부과)**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minimum tax)을 부과하여 제조업 세금 감면에 사용